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3주일(성 요셉 성월)
제30권 15호(다해) 2010 · 3 · 7

[묵상]



산상설교

<각자묵상, 13세기, 채색 삽화, 대영 도서관, 런던>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아이티 지진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하느님은 회개의 표시로
열매를 원하신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회개하지 않는 우리와 같다.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지 않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

열매 맺을 준비도 없이
회개의 시기라고 외치기만 하며
멸망에서 유예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멸망을 기다리는 자와 뭐가 다를까!

-框-

martinlee0501@hau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저녁 미사(사순시기만)	오후	7: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배론 청년회 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에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레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 꾸리아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첫째/셋째주 - 대학부(PACEM)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2:30 오후 1:00 오후 2: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월신부 : 이장환 파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카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한숙이 모니카
특전 미사	(생) 김봉길 바오로 & 제희 모니카, 최양숙 안젤라, 정지혜 안젤라 & 정다니엘, 남인구 야고보 & 정선 안젤라
주 일	(연) 소수연 안나, 이현호 요한, 김종환 야고보, 최복덕 마리아, 이은완 야고보, 고준희 제임스, 변세연 대견안드레아, 이금순 마리아, 이영자 마리아, 엄은섭 도로테오, 김시형 시릴로, 이강봉 & 임병상 마리아, 김봉태 바오로, 염고도 마리아, 신임순 안나, 불쌍한 영혼들
낮 미사	(생) 홍광선 & 이호미 엘리사벳, 최석원 클레멘스, 이영희 카타리나, 오현옥 발비나, 김대우 비오 & 숙희 심포로사, 이대영 & 로사, 모로마리아, 준희스테파노, 이근모 마리오 & 행자 리드비나, 변종욱 & 복순 베로니카, 구마리아네수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Exodus) 3,1-8ㄷ.13-15
화답송	◎주님께서는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전례성가 65, 사순 제3주일 다해>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내 안의 온갖 것도 그 이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당신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말아라.◎ ○네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낫게 하시니. 죽음에서 네 생명 구하여 내시고, 은총과 자비로 관을 씌워 주시는 분.◎ ○하느님께서 의로운 일을 하시며, 억눌린 자 권리를 도로 찾아주시도다. 모세에게 당신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당신 일들 알려셨도다.◎ ○주님께서는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매우 인자하시도다. 저 하늘이 땅에서 높고 높은 것처럼, 경외하는 자에게는 너무나 크신 그분의 자비.◎
제 2독서	코린토 1서(Corinthians) 10,1-6.10-12
복음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	루카(Luke) 13,1-9
영성체송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53	149
봉헌	256	255
성체	온맘 다해	284,302
파견	158	157

1.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올부짓고 있다.

- 인간 생명에 대한 현대의 위협 -

▶희망의 표징과 헌신에 대한 초대

아마도 이러한 긍정적인 표징들이 의사 전달 매체들의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도 그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약하고 보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려는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고 또 계속 생겨나고 있는가!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일반 사회 안에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개인, 단체, 다양한 종류의 운동 단체들을 통해서 말이다.

아직도 많은 부부들은 관대한 책임감으로, 자녀를 "혼인의 가장 뛰어난 선물"(12)로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에 대한 일상의 봉사 안에서, 버려진 아기들과, 어려움에 빠진 소년소녀와 십대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가정들도 없지 않다. 많은 생명 후원 센터들과 유사한 기구들은 개인과 단체들의 후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개인과 단체들은 놀랄 만한 헌신과 희생으로, 곤경에 처한 어머니들과 낙태에 의존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어머니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곳에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일 준비를 갖춘 자원 봉사자 단체들이 점차로 생겨나고 있다. 가족이 없는 이 사람들은 특히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거나, 과밀적인 습관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도록 도와줄 환경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의학은 전문 연구자들과 임상 의사들의 헌신에 힘입어 더욱 효과적인 처방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오늘날 태아와 고통받는 사람들과 급성 질병, 또는 질병의 말기 단계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 치료법들은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장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다양한 기관과 조직체들이 빈곤과 풍토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가장 진보된 약품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국가와 국제 차원의 의사협회들은 자연 재해, 풍토병, 또는 전쟁으로 시달리는 민족들을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다. 비록 의료 자원의 공정한 국제적 재분배를 실현하는 일이 아직 멀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진척되어 온 단계들 안에서, 민족들간에 증가해가는 일치와, 칭찬할 만한 인간적이고도 도덕적인 감수성과, 생명에 대한 더 뛰어난 존중의 표징들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겠는가?

27). 낙태 허용법에 대응하여,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안락사 합법화 노력에 대응하여, 생명 옹호에 대한 사회적 각성을 일깨우기 위한 운동과 자발적 움직임들이 세계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계속)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첫” 만남

사순 3주일을 맞아 교회공동체는 매우 특별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첫째 독서인 탈출기 3장은 모세가 최초로 야훼 하느님과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우리들 인생의 이야기에서도 “첫”으로 시작하는 모든 낱말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듯이 하느님과 모세, 곧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에서도 그 “첫”만남은 매우 중대한 함의를 지니게 됩니다.

먼저 모세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이끄는 민족적 지도자로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언급되는 예수의 성변화 사건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은 예수시대에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로 여겨졌는지를 반영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이들은 모세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모세가 야훼 하느님과 만나는 것은 단지 모세와 하느님의 만남이 아니라, 야훼와 이스라엘의 만남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탈출기 3장은 우선 모세가 야훼 하느님과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곳은 “하느님의 산 호렙”이라고 설명되는데, 호렙은 시나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따라서 훗날 계약이 맺어질 그 장소에서 모세는 야훼 하느님과 미리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을 보고 야훼(또는 야훼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느님을 만난 것을 알지 못한 채 궁금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자세히 보려 가는데, 그때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야훼의 명령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는 명령과 “신을 벗으라”는 두 명령은 고대종교의 틀 위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지상에 속한 인간이 신적 세계와 접촉하게 되면 그는

죽거나 벌을 받게 된다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첫째 명령을, 그리고 인간의 몸에 걸친 것은 인간의 권위를 상징하므로 신 앞에서는 그와 같은 권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종교적 이해로부터 둘째 명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모세에게 그가 파라오와 백성에게 가서 전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느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질문은 다신적 세계관 안에서 모세가 알고 있던 술한 신들의 이름 중 자신에게 나타난 신의 이름은 무엇이라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하느님은 (오늘날의 신학자들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으로 대답하십니다: “에호에 아세르 에호에”. 여기서 “에호에”란 “하야(있다)” 동사의 미완료형, 즉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이고 “아세르”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이 어려운 문장에 대해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세워보았지만, 그 누구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대답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일반적인 라틴말 번역인 “ego sum qui sum”에 따라 “나는 있는 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과연 탈출기 3장에 나오는 하느님의 이름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그 문장에서 사용된 동사인 “하야”라는 동사는 “있다/존재하다”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은 스스로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있게”하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한다는 것을, 즉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하느님은 존재와 생명(!)의 하느님임을 그 “첫” 만남에서부터 어렵듯이 암시하고 있음을 그 행간에서 읽게 됩니다.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정미영 미카엘라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이태호 바오로	김교복 레오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김금자 테레사	이혜선 안젤라
재물봉헌자			하비/카슨 1,2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팅	신덕례 테레사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재물봉헌자			토린스 남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7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十 사순시기 十

-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7:30 저녁미사 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아침미사가 오후 7시30분으로 변경됩니다. 미사후 십자가의 길 기도가 진행중(구역순)입니다.
 - 사순 제3주일 금요일(3월12일) : 토런스 북구역
 - 사순 제4주일 금요일(3월19일) : 하버/카슨 구역
 - 사순 제5주일 금요일(3월26일) : P.V. 구역
- ◆ 사순 특강이 매 주일미사 중에 있습니다.
 - 사순 3주(3월6/7일) : 이순성 신부(글라렛 선교수도회, 전 광주가톨릭대학교수), “사순시기에 맞는 신앙생활”
 - 사순 4주(3월13/14일) : 최영신 종신부제, “종신부제와 봉사의 삶”
 - 사순 5주(3월20/21일) : 양희문 신부
- ◆ 사순 판공성사 : 3월23일(화)
 - 참회예절 : 오후 7시30분
 - 고해성사 :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도 같은 일정)
 - 공동보속 : ①사도행전 통독 ②선행1회 ③주모경 1회
이중 두가지 이상 선택(특히 선행은 성당의 잡초뽑기를 권유합니다.)
- ◆ 사순절 희생 애공을 준비합니다.
 -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사순절 애공 봉투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4월1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서머타임 시작(Daylight Saving Time Begins)
3월14일(주일) 새벽 2시에 시계바늘을 3시로 돌려 놓으십시오. 따라서 14일 주일미사는 평소보다 1시간 빨리 준비하는 셈입니다.

◆ 제1회 부활맞이 친선탁구대회 준준결승 속개

- 출전팀 : 5구역/5단체팀(토런스 서-남-북, 하버카슨, P.V. 회장단, 양업-성모, 대건-자모, 원서-청년, 대학-주일학교 팀)
- 준결승 : 3월28일 주일(3구역팀, 3단체팀 출전)
- 결승 : 4월4일(부활절)

◆ 아이티 지진피해자 돕기 성모회포 김치판매

- 일시 : 3월20/21일(토,일) 특전미사부터 주일미사까지
- 집에 있는 빈 김치병 모으기 : 300병이 필요합니다.
- 김치 담그는 날(3월19/20일) 봉사자(자매님과 특히 형제님들)의 도움이 절실하오니 적극 협조해주시고.
- 문의 : 성모회장 오혜숙 루치아 ☎(310)490-3358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아치에스 행사 안내

- 일시 : 3월 21일(주일) 오후 1시30분 * 장소 : 성당
- 레지오 단원들이 한해동안 악의 세력에 대항할 힘과 축복을 받는 아치에스 행사에 활동단원 및 협조단원들은 모두 나와 성모님께 충성 서약과 봉헌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장 : 한복 또는 정장

◆ 남가주 한인M.E. 제65차 첫주말 수강부부 모집

- 일정 : 4월30일(금)~5월1일(주일)
- 장소 : 마리아 & 요셉 피정센터(P.V.)
- 신청비 : \$50 ☎(310)347-1665 김유스티노&루치아 대표부부

◆ 백삼위 후보 편집위원회 구성

본당 신자들의 신앙활동상을 담은 알찬 후보를 제작하기 위해 후보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제작에 필요한 컴퓨터 하드웨어에서부터 취재, 편집 등에 이르기까지 새로 구성된 위원들이 맡은 소임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위원회 : 본당 신부님, 이성연 크리스티나(편집위원장), 최태훈 아오스딩, 신철규 미카엘, 김성현 유스티노, 이상용 엘리야, 김민수 바오로, 본당 사무장.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3월7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4)
- 3월14일(주일) : P.V. 1반(육개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강인모	국세찬	김광자	김양금	김일선
	김정엽	김주량	김철민	김종섭	김태호	김현숙
미사헌금 : \$2,938.75	문향업	민정근	박동수	박정희	박종열	박홍룡
	서성용	안재만	양영관	오일순	유경자	육재민
	이경태	이민상	이병우	이병찬	익명	정상문
	정열모	조윤영	주대중	지경수	최수복	최진수
	최희태	하정화	한금순	홍대희	황지영	
	합계 : \$5,210					

성전헌금	강숙경	국세찬	김광자	김성현	김양금	김일선
	김정엽	김주량	김철민	김종섭	김현숙	문향업
	민정근	박정희	박종열	서성용	안재만	양영관
	유경자	육재민	이경태	이민상	이병우	이병찬
	익명	정상문	정열모	주대중	지경수	최진수
	최희태	하정화	한금순	황지영		
	합계 : \$3,430					
	도네이션 : 성 마가렛매리 본당 \$300(성전사용)					

공지사항

◆ 부활절 은총시장 행사 도네이션 받습니다.

- 부활절 은총시장행사를 위한 도네이션(현금, 학용품, 장난감)을 받습니다. 은총시장은 초등부 학생들이 주일학교에서 각자 얻은 점수로 필요한 물건들을 살수 있게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더욱 주일학교에 열심히,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하기위하여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2세들의 신앙교육에 간접적이거나 도움을 주실분(개인, 단체)들은 주일학교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기간 : 3월7일(주일)~28일(주일)까지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310)780-0369, 또는 사무실

◆ SAT II 한국어 전국 모의고사

- 일정 : 3월말
- 대상 : 8학년 이상으로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
- 신청 : 한국학교 교사실 * 신청비 : \$1

◆ 주일학교 견진성사

- 리허설 : 5월14일(금) 오후 7시30분~9시
- Reflection : 5월20일(목) 오후 7시
- 견진성사 : 5월21일(금) 오후 7시
- 대상 : 주일학교 견진성사 대상자(10학년 이상)
- 장소 : St. Margaret Mary(25511 Eshelman Av. Lomita)
- 참가비 : \$40 (파티비 포함)
- 신청 마감 : 3월21일 *신청 :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
- 견진성사와 대부모는 위 3일의 일정에 모두 참여해야함

남가주 소식

◆ 제6차 성 골롬반 청소년선교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일시 : 3월20일(토) 오전 11시
- 장소 : 위터어내로 골프코스(8640 Rush St. Rosemead)
- 참가비 : \$100(그린피, 카트, 저녁식사 포함)
- 신청 : ☎(323)734-4946
-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최용훈 요셉 신부

◆ 2011년 세계가톨릭청소년대회 : 스페인 마드리드

- 베네딕도 16세 교황님께서 가톨릭 신앙을 함께 기뻐하고자 전세계 다문화 다민족 젊은이들을 부르십니다.
- 일정 : 2011년 8월12~23일 스페인 마드리드
 - 대상 : 행사달에 16세 이상 되는 청소년과 청년들
 - 인솔자 : FIAT재단 김알렉스 신부/이유진 신부
 - 참가마감 : 올 2월말까지 ☎(310)985-1684 프란시스 박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각 단체 모임의 날	오전 9시30분, 오후 1시
------------	-----------------

3월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씨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아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김광자 엘리사벳 328-0847 3/13(토) 오후 7시 성당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3/13(토) 오후 7시 성당
	3	신덕래 데레사 494-1390	신덕래 데레사 494-1390 3/20(토) 오후 7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박정애 소화 데레사 218-7340	1	김순희 모니카 328-1817	박인식 토마스 328-1817 3/14(주일) 오후 5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박스테파노 542-2952 3/18(목) 오후 7시
	3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박진숙 로사 543-9051 3/20(토) 오전 11시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최옥희 데레사 378-4183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3/20(토) 오후 7시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이경수 헬레나 972-9193 3/10(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이상칠 크리스토포 793-7733 3/12(금) 오후 7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권병연 리디아 938-3255	1/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권진열 피데스 938-3255 3/13(토) 오후 7시 성당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종열 토마스아퀴나스 784-0460 3/13(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박종선 리비나 748-7323 3/12(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국세찬 세바스찬 541-7644 3/12(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박옥진 세실리아 377-0436 3/12(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김인숙 안젤라 265-4701 3/9(화) 오전 10시30분

3월 성 요셉 성월

성서에 나타난 요셉과 성 요셉 신심

3월은 성 요셉 성월. 동정 마리아의 남편으로 임종하는 이들의 수호성인이기도 한 성 요셉에 대한 이해는 마리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성 요셉 성월을 맞아 성서에 나타난 요셉과 성요셉 신심 등에 대해 알아본다.

▶성 요셉은 누구인가

요셉(Joseph)은 '더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하느님께서 후손을 더하시기를'이라는 뜻이다. 이 이름은 구약시대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서 유래했는데 예수 당시에는 매우 흔한 이름이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의 아버지이지만 신약의 마태오 복음과 루카 복음에 약간 언급되어 있을 뿐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성서에 따르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당시 요셉은 그녀의 약혼자였다. 그 무렵 유다교 율법은 불의를 행한 약혼녀는 돌로 쳐죽이든지 극형에 처할 정도로 엄했지만 그는 성령으로 인한 잉태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인다.

목수였던 그는 예수의 이름을 지어주고 예수와 마리아를 보호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예수가 목수였던 것도 요셉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게 신학계의 정설. 어린 예수가 성장할 때까지 요셉은 가족의 생계를 꾸렸다. 그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 속에 가족을 이집트로 피신시키고 나중에 예수를 성전에 봉헌했다.

▶성 요셉 신심

성 요셉은 하느님께 대한 순종과 믿음으로 마리아의 순결을 흠 없이 보호했을 뿐 아니라 성 가정의 가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런 성 요셉에 대한 신심이 본격적으로 고양되기 시작한 것은 13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다. 요셉 성인에 대한 공경이 비교적 늦게 시작된 이유는 그의 역할이 성모 마리아만큼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의적으로 확인되어 전례적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1324년 마리아의 종 수도회가 3월19일을 성 요셉 대축일로 지낸 데 이어 1479년 교황 식스토 4세가 이날을 성 요셉 대축일로 공식 인가했다. 이는 성 요셉 공경이 널리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시에나의 성 베



르나르디노,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 요한 제르송 등이 15-16세기 성 요셉 공경 확산에 기여한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는 자서전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를 이루듯 성 요셉과 성모 마리아 성자께서는 나자렛 성 가정 안에서 이타적인 삼위일체의 삶을 살았다"면서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삼위일체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 요셉을 공경하고 나자렛 성 가정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870년 교황 비오 9세는 그를 교회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했으며 레오 13세 교황은 성 가정의 보호자인 그를 가정의 모범으로 선포하면서 성인들 가운데 성모 마리아 다음 자리에 올렸다. 또 1955년 교황 비오 12세는 노동절(5월 1일)을 '노동자 성 요셉 축일'로 제정했다.

성 요셉은 성모 마리아와 함께 한국 교회의 공동 수호성인이다. 주교회의는 교황 그레고리오 16세가 1841년 조선교구의 주보 성인을 허락할 당시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을 함께 모실 것을 조건으로 했다는 사실을 지난 99년 가을 정기총회에서 확인한 바 있다.

이처럼 성 요셉은 한국교회와도 각별한 인연을 지니고 있다. 성 요셉의 모범적인 삶과 신앙은 만사의 근원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커다란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평화신문에서▶